

폐광지역 진흥사업 및 광해방지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석탄산업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산탄지의 진흥과 석탄산업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주요 기능은, 석탄광업의 폐광대책비 지원사업, 폐광지역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 사업, 광산지역 진흥 및 개발사업,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 용자 및 지원사업, 석탄 및 연탄의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석탄광근로자의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석탄 및 연탄의 품질검사 사업 등이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은 폐광지역을 지원해 준 사업

'89년부터 연탄 소비가 크게 줄어 많은 탄광들이 부도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폐광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광업자와 근로자를 지원하였다.

폐광지원사업은 탄광의 경영이 어려워져 스스로 폐광신청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탄광을 정부가 강제로 합리화 시킨 것이 아니고 사후에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이나 광업자의 부도에 따른 지역사회에 미치는 혼란을 극소화시켰다.

이는 다른 산업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획기

적인 지원사업으로서 합리화로 인하여 광산지역이 황폐화된 것이 아니고 폐광이 되는 지역의 고통을 덜어 준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89년부터 '95년까지 정부예산으로 탄광 지역에 무려 3,677억원을 지급하였다.

석탄 및 연탄제조업의 지원사업

탄광들의 생산규모 축소와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국내 무연탄 생산원가는 계속 높아져 가격이 수입 무연탄에 비해 '89년에 약 1만5천원 비싸더니 점점 가격차가 벌어져 '94년에는 무려 톤당 약 7만5천원이 높아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석탄산업 보호차원에서 '89년부터 '95년까지 무려 1조6천억원을 보조해줌으로써 석탄산업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89년부터 '95년까지 지급한 가격안정지원금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사업

폐광갱구에서 유출되는 산성수로 인해 상수원 수질오염 및 황갈색 침전물(yellow boy 현상)의 발생으로 낙동강, 한강의 최상류를 오염시키고, 지하채국적 붕괴에 따른 철도 등 중요시설지역의 지반침

가격안정지원금 지급현황

구분	'89	'90	'91	'92	'93	'94	'95	계
톤당(천/톤)	3	7	12	16	35	50	64	18(평균)
지원액(억원)	664	1,121	1,849	1,866	3,330	3,702	3,672	16,204

하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며, 채탄활동으로 훼손된 산림과 폐광지역에 방치된 폐공가 등이 탄광지역 개발에 장애요인이 되는 등 폐광을 한 뒤의 석탄광 개발 흔적지 등의 광해가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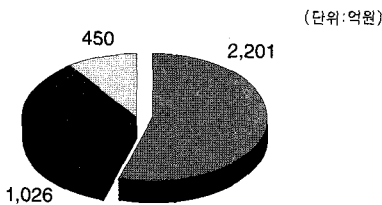
사업단은 폐광지역의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 사업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야할 국가적인 사업으로 판단,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하여 '95년부터 2001년까지 1,912억원을 투입, 단계적으로 완전복구한다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다.

폐수정화 및 하상정비사업

전국 152개 탄광, 206개 폐갱구에서 1일 4만8천여톤의 갱내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인근 하천 및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 이로인한 수질오염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폐수를 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905억원의 예산을 투입, 물리 화학적 및 자연 정화방법 등 현지 실정에 맞는 정화시설을 시공, 폐수처리를 완벽하게 함은 물론 하상정비와 제방쌓기 등의 공사도 병행하여 종전보다 나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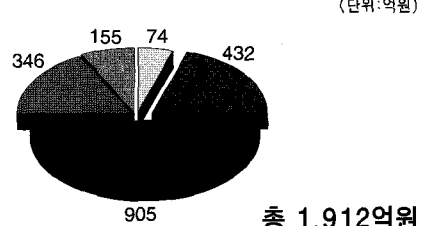
폐광대책비 지급현황



총 3,667억원

- 근로자
- 광업자
- 산림복구, 광해방지

'95년부터 2001년까지 투입할 예산



총 1,912억원

- 폐시설물철거
- 산림복구
- 폐수정화
- 지반침하방지
- 출수피해방지 등

전국 광산광해 발생현황

구 분		폐 광 가		행 일 반 광		계			
		개소	물량	개소	물량	개소	물량		
폐 시설물	폐공가(동)	42	2,201	5	1,195	-	-	47	3,396
	폐시설물(동)	69	531	-	-	-	-	69	531
	저탄장정비(천㎡)	10	163	-	-	-	-	10	163
산림훼손(천㎡)		361	12,259	11	5,127	-	-	372	17,386
폐 수	폐수량(천㎡/일)	206	48	10	81	8	3	224	132
	하천오염(km)	-	152	-	27	-	2	-	181
지반침하우려(지역) <산악지역 제외>		9	-	1	-	2	-	12	-

* 폐수량 48,050톤/일 : 도시민 20만명이 하루에 버리는 생활오수의 양

로 만들 계획이다.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사업

폐광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공가와 폐시설물은 전국에 총 2732동이나 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폐공가는 사유재산이어서 소유자 확인과 철거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조속한 철거를 위해 지역사정에 밝고 지역주민과 유대관계가 있는 지자체 대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철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74억원이 소요된다.

산림훼손복구 및 폐석유실방지사업

훼손된 전국 88개 폐탄광의 산림훼손지 2백7십8만 432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복구하여 폐석유실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산림훼손지를 예전의 푸른 모습을 되찾게 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방지사업

광산개발로 형성된 지하갱도 및 채굴적의 붕괴로 갱도상부에 있는 철도, 도로, 주택 등 주요구조물이 파손되어 발생하는 대형 인명피해 및 막대한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채굴적의 크기와 심도, 주변 지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국 12개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현재 정밀조사와 계측 그리고 보강이 필요한 구역은 지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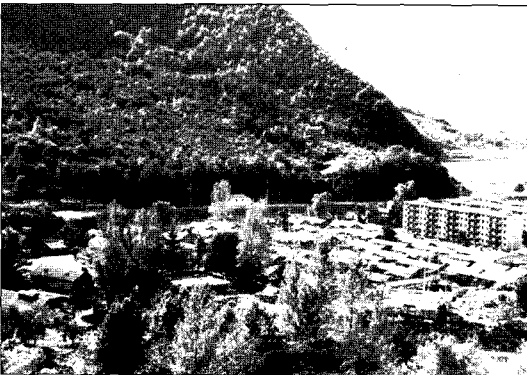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실시하는 철암지역 보강공사에는 44억2천만원의 자금이 소요되며, 6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반침하로 인한 재난발생의 위험은 사라지게 된다. 이 사업에는 총 346억원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탄광지역개발 대체 산업 유치 및 용자사업

석탄산업외에 별다른 제조업체가 없는 탄광지역은 석탄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탄광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 공동화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한 주민의

석공은성 폐공가 철거



공사 전



공사 후

불만고조로 폐광지역의 진흥개발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95년 12월 29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96년 4월 6일에 시행령을 8월 16일에는 대체산업 육성계획 등을 고시하므로써 탄광지역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석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은 정부의 시책을 이어받아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제조업체를 건설, 확장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9월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용자신청을 받은 결과 18개 업체에서 666억원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사전심사를 마치고 11월 21일에 「대체산업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업체의 사업성, 고용효과 및 지역적인 특성 등을 감안, 용자금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용자를 위한 제반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용자금은 '96년에 3백억원, '97년에는 5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97년은 용자대상을 제조업체 뿐만아니라 개발계획에 의한 관광레저산업분야

까지 확대함으로써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조속한 시일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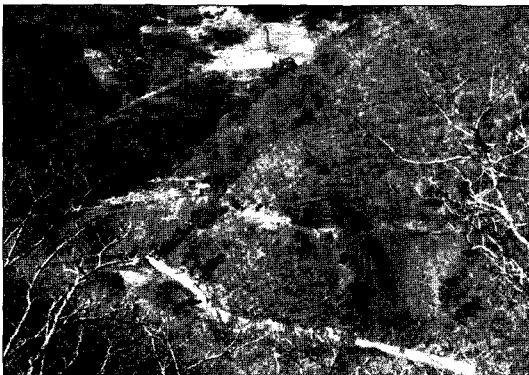
탄광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

열악한 근무조건속에서 땀흘려 일하는 석탄광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자 1인당 2자녀까지 중·고·전문대·대학의 등록금 실납입액을 지원하고 있다.

'87년부터 '95년까지 총 2십만9천950명에게 약 89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96년에는 현재 2만9천797명에게 120억여원의 학자금을 지급하여, 탄광근로자 후생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업단은 석탄산업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탄광지역의 진흥과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석탄산업의 명맥을 유지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수요처개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석탄을 수송할 전용 화차를 제작하여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이를 위해 사업단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돼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산림 복구공사



공사전



공사후